

DUCK'S NEWS

1

1·2월 고병원성 A ‘초비상’ 야생조류 예찰 확대...방역 취약지역 일제점검

이번 겨울 우리나라에 온 겨울 철새 수는 132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8만 마리에 비해 무려 22%나 늘어났다. 야생조류에서 H5형 또는 H7형 A(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사례도 지난해 42건에서 46건으로 9%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유입이 증가하는 1~2월은 A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A 발생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 예찰을 확대하고, 방역 취약지역 일제점검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1~2월에 실시하는 A 예찰 및 검사를 당초 계획(5,342건)에 비해 훨씬 늘어난 8,708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H5·H7형 A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즉시 인근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검출지점 반경 10km에 대해서는 바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소독·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A 항원이 비록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일 동안 소독 강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철새가 다수 도래한 지역과 오리농가·산란계밀집사육단지 등 방역취약지역 877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A 예방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A에 취약한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농식품부는 전국의 모든 오리농가(539가구)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이유는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발생한 고병원성 A 총 834건 중 462건(55%)이 오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지난해 10월 이후 A 위험시기에 가금류를 키우기 시작한 농가와 사료 공급 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 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시설과 물품을 매일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전남동물위생시험소, AI 유입 차단방역 강화

2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영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야생조류에서 계속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소하천 집중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 철새가 국내에 돌아오는 지난해 10월부터 야생조류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1월 11일 현재 저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는 50건, 전남에서는 3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6대를 동원해 전남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및 인근 소하천, 주변 도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종 오리 농장에 대해 매일 전화 예찰과 주기적 현장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농장으로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육용오리 농장에 대해 입식 전부터 출하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고 닭오리 사육농가는 물론 가금도축장, 가축 출하차량 등 모든 AI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검사 등 촘촘한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신속 정확한 AI 검사를 위해 AI 정밀진단기관 및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매년 14만여 건의 AI 예찰검사를 하고 있다.

▶ 축산신문 [2019. 1. 14]

보은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90% 지원

3

보은군은 예상치 못한 축사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8억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년보다 군비 5%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40%, 국비 50%를 지원하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5종(사슴, 산양(염소),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액은 국비는 한도 금액 없이 가입금액의 50%, 지방비는 호당 2,000천원 내 지원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지원되어 지방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시가기준으로 8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브레이크뉴스 [2019. 1. 14]

4

‘시 없는 겨울’…5부 능선 넘었다



매년 가을·겨울 닭·오리 농가를 괴롭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겨울 들어 자취를 감췄다. 가금농가는 1월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모처럼 '시 발생 없는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4일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시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건 모든 관계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까진 위험한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갖고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정조정실·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참가했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 사망한 사례도 있다. 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올겨울은 모처럼 AI 발생 소식이 없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발생한 이후 한해도 빼놓지 않고 가을(9~11월)에 시작해 이른 봄(3~6월)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괴롭혀 왔다.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 5년 만이다. 방역 당국이나 가금 농가도 이 추세라면 AI 없이 한해가 지나갈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가금농가의 자체 방역을 독려하고 축산 거점시설 소독도 대폭 늘렸다. 전국적으로 1만 건이 넘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했다. 특히 AI 발생 전력이 있거나 자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200여 오리 농가는 아예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사육 자체를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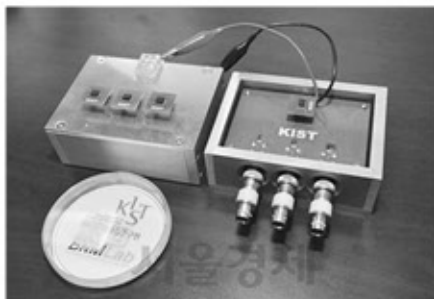
당국은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러시아 등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 이동 경로 국가에서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국내 야생조류 역시 지난해보다 22%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모두 감염 우려가 희박한 저병원성으로 판명되기는 했으나 야생조류 분변 조사 결과 48건의 AI 항원이 검출되기도 했다. 겨울철에 뜸하다가 3월에 다시 발생한 전례도 있다.

방역 당국 한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도 무사히 넘긴 만큼 이제 반쯤은 고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농가의 감염 경로를 100%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언제나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 연말 전국 도축장 48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소독이 된 곳은 13곳(27%)뿐이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가축전염병 구제역(소·돼지)과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 방역도 당부했다. 그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면역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ASF도 아직 발생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와 ASF 국경방역 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데일리 [2019. 1. 14]

겨울철 골칫덩이 A형 ‘현장에서 바로 검출’



해마다 겨울이면 축산농가 등을 괴롭히던 조류인플루엔자(A형)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바로 검출할 수 있는 이동식 고감도 검출장치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재료연구단 이관희 박사팀과 건국대 수의학과 송창선 교수팀은 축사와 들판에서 A형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전기신호 기반의 반도체 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A형 바이

러스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데 매년 축산농가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민 건강을 위협해왔다.

현재는 금 나노입자 기반의 ‘래피드 키트’를 주로 사용하는데, 검출 감도가 낮고 검사용 대상에서 바이러스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검출 신호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 전기신호 방식의 박막 반도체 바이오센서를 만들었다. 현장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이를 이동식 패키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동형 바이오센서는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A형 바이러스를 기존 검출키트보다 1,000배 이상 높은 감도로 검출하면서도 오진을 일으키는 유사 바이러스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험군 바이러스 실험이 가능한 음압시설을 갖춘 건국대 수의과대 BSL(Bio Safety Level)-3시설에서 시험한 결과다. 다만 이 검출장치는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어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일이 걸리는 기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관희 KIST 박사는 “고병원성 A형 바이러스에게만 있는 특이 항원 등을 바이오센서에 활용하면 고병원성 바이러스 종류까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휴대용 A형 검출장치를 개발,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기개발사업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융합연구사업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게재됐다.

▶ 서울경제 [2019. 1. 21]

6

이개호 장관, “농촌의 근간, 축산이 사랑받도록 하겠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을 찾아 축산관련단체 대표단과 임직원들을 만났다. 이개호 장관은 축산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며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1월 15일 제2축산회관을 방문해 회관에 거주한 각 단체 사무실을 돌며 신년인사를 나눴다.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회관의 각 단체 사무실을 두루 방문한 건 유례를 찾기 힘든 행보다. 이 장관은 친필로 ‘농촌의 근간 축산이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명록을 남겨 관계자들을 한껏 고무시켰다.

이 장관은 이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별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제역·시 방역현황을 점검하러 농장을 방문하려 했는데 농가에서 ‘장관도 오면 안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축산 농가들의 방역의식이 철저하다”고 치하하면서 “다들 수고가 많지만 함께 축산부국을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특히, 미허기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축산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지금부터 적법화 케이스별로 후속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새해를 맞아 축산회관을 찾아 감사하다.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건의사항에 꼼꼼히 답변해 고마운 마음이다”고 환영했다. 문 회장은 “그러나 마냥 즐겁지는 않다. 대한양계협회는 지금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축산 농가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며 “농식품부가 축산농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

7

AI 위험 높은 1월, 철저한 방역태세 갖춰야

예년과 달리 옮겨울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1월에는 철새 유입이 증가하는 등 어느 때보다 AI 발생 가능성이 커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18년 1월에는 3일 경기 포천을 시작으로 전남 강진·나주·장흥, 경기 화성·평택 지역에서 한 달 내내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무수한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등 농가피해가 컸다. 올해 병 발생은 없지만 국내에 도래한 겨울 철새가 지난해 같은 때보다 22%나 늘어난 데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건수도 9% 늘었다. 게다가 통상 AI 바이러스는 4℃ 이하의 분뇨 안에서 최소 35일간 생존하지만 날씨가 추울수록 생존기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은 언제든 AI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시기라는 의미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0일, '1월 AI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서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AI 예찰·분변 검사건수를 애초 계획보다 63% 늘리고, 항원이 검출되면 이동통제와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간 소독강화를 유지하는 등 사전 예방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중앙점검반은 철새 도래지역을 중심으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과 인근 농가의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특히 전국 530여 오리농가 전체를 일제 점검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AI 발생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가와 도축장 등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활동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방역당국의 불시검사에서 조사 대상 도축장 48곳 가운데 70%가 넘는 35곳이 소독미흡 판정을 받은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방역의식이 피해를 키운다. 방심은 금물이다. 가금류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물샅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춰야 한다. 올해가 AI 발생 없는 해가 되느냐는 지금부터의 방역에 달렸다.

▶ 농민신문 [2019. 1. 14]



8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AI 등 우수 연구성과 도출” ‘간이 진단키트’ 2018년 하반기 과기부 우수성과 100선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8년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결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원 헬스(One Health),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구제역 진단과 관련해 현장에서 15분 이내 감염 여부뿐 아니라 혈청형 3종 감별이 가능한 간이 진단 키트가 2018년 하반기 과기부 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됐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공급해 현장 적용됐다.

구제역 백신과 관련, 2020년 이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민간백신회사(주) FV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개발 중인 백신 제조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있다.

AI와 관련해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H5형 백신 후보주 5종을 선정하고 백신효능평가 결과, 효능이 확인된 AI 긴급백신 제조용 항원의 비축을 완료했다.

구제역과 AI 대응 국제협력을 위해 지난해 한·러, 한·라오스·베트남, 한·아르헨티나 등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올해는 한·미, 한·캐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ASF가 중국과 몽골로 확산됨에 따라 불법 휴대 축산물 검사 총 203건을 실시했다. 이중 중국산 4건(순대, 소시지 등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했으나 국내 사육돼지·야생멧돼지 항체 예찰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올해 상반기 2명(연구관 1, 연구사 1)의 ASF 연구인력이 증가돼 진단법 개선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특성분석과 백신개발 기초연구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원 헬스 측면에서 국가단위의 항생제내성 및 인수공통전염병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질병관리본부·국립환경과학원과 지속적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해 왔다.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대상 축종에 반려동물과 오리 등을 추가했으며 올해 신규과제 추진을 통해 수의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동물질병 이외에도 기존에 식물검역 때 사용되던 소독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소독처리 비용절감 등 그 성과가 인정돼 지난해 과기부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으로 선정됐다.

검역본부는 올해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전년(215억 원)보다 4.7% 증액된 225억 원으로 앞으로 계속과제 이외에 60개 신규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지속적으로 현장 맞춤형 우수 연구성과를 도출해 국가방역, 특히 국가재난형 질병 비발생 사수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의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 [2019. 1. 28]

설 육류 성수기...도축장 연장 운영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육류 소비 최대 성수기인 설을 맞아 늘어나는 도축물량 해소를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하고, 유해한 오염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과 항생제 등 잔류물질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25일부터 도축장을 평소보다 조기 개장한다. 도축장별 도축 물량을 감안해 일요일인 2월 3일과 설 연휴인 4일에도 개장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단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남지역 20개 도축장(소·돼지 10, 닭 4, 오리 5, 염소 1)과 식육을 대상으로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와 함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에 나선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시기에 닭·오리고기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심축이 도축·유통되지 않도록 방역과 위생 검사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작업 중단과 함께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지영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설을 맞아 도축장 작업 시간 연장 운영 및 휴일 개장으로 축산물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니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 축산신문 [2019. 1. 24]